

건설공사 수주액 4년 연속 1조원 돌파 기대

도내 건설업계 활성화 전망

도내 건설업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공공공사 발주로 최근 전체 수주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각종 경기장 및 진입도로 관련 공사 발주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지역 건설업 관련 행사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 수주금액 규모 관심

최근 3년간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1조원대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2012년 1조1,646억원, 2013년 1조3,157억원 등에 이어 지난해에도 12월까지 1조1,9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추정가격 1,214억원 규모의 동계올림픽 진입도로 공사 등이 발주될 예정으로 연간 수주금액이 4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업체들의 수주금액이 늘어나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할발주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적공사비 개선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제도가 개편된다. 3월부터 실적공사비를 대신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방식인 '표준시장단가'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 산정 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중부내륙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가 2016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한창인 가운데 원주시 지정면 6공구의 삼산교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원주=오윤석기자

1,214억대 올림픽 진입도로 발주 다종 규제 개선·입찰기회 확대

로 정부는 이에 따라 공사비가 좀 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인 최저가격제한제도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종합심사제는 대표사를 포함한 참여사들의 실적이 심사점수에 들어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어려워 영세업체는 입찰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에서의 분할·분리발주 회피,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 등도 지역건설시장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

도내 최대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50여개 업체 참여 1만여명 관람

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올해도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올해 1분기에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연간 발주계획을 정리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총 발주규모는 전년보다 48% 늘어난 4,123개 사업 4조2,309억원에 달했다. 도 등은 설명회를 통해 지역업체들이 조기에 공사물량 수주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시에 공공기관에도 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자재 구매를 유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가 서로 협력하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2010년부터 매년 주택·건설·건축 관련 도내 우수제품을 한자리에 전시하는 강원에코홈페어·주택건설건축박람회도 개최된다. 박람회는 지역 50여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건설 관련 공무원 등 1만여명이 관람하는 도내 최대 건설 관련 전시회다.

올해도 △건축자재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인테리어 기자재 △건설장비 및 공구 △가구·인테리어 △LED 조명 및 전기설비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최신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조달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속초해변 연안정비사업 등 2360억원(12건) 규모의 공사입찰을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644억원(2건) 규모의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의 주간입찰동향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조달청에 의뢰한 속초해변 연안정비사업(279억8100만원), 강릉 영진-교항지구 연안정비사업(364억4300만원) 등의 입찰이 예정돼 있다.

이번 주 지역별 발주량은 세종시(658억원), 강원(644억원), 경남(345억원), 충북(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현철

동부건설 협력사 피해 우려

**법원 법정관리 결정 땀
채무동결로 자금난 전망**

**원주~제천 복선전철 등
10여곳 공기지연 불가피**

강원연고 대기업인 동부그룹의 주력 기업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동부건설과 관련된 도내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4일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도회 등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도내 건설현장은 10여곳으로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무동결과 채권 조정 과정을 거치게돼 100여곳의 협력사들이 자금난으로 공사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동부건설이 도내에서 공사 중인 현장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 건설공사(1033억3100만원) △강원랜드 하이원위터월드 건설공사(1075억9400만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11공구(1916억원)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710억원) △국도 6호선 강릉 연곡~두능 4차선 확장공사(1087억원) 등이다.

또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슬라이딩센터 등 대형 공공공사에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참여, 지분율에 따른 공기지연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38호선 태백~도계구간(11km) 공사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발주한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공사 등 도내에는 모두 10여곳의 크고 작은 동부건설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 건설공사의 경우 동부건설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다 현재 공정률도 40%수준에 불과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자금결체 등이 막혀 공기 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국도 38호선 태백~도계에서 터널 및 골재생산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역시 7억9000만원의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불금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공공부

문 공사 현장 90곳의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건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며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큰 지장을 받고 있지 않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추후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알립니다

2015 강원경제인대회·신년인사회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강원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2014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온세현 품질경영연구소 대표를 초청, 2015년 국내외 시장의 트렌드와 중소기업의 대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원경제인대회가 강원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온세현 대표

- 일시 : 2015년 1월 22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호텔인터불고원주컨벤션센터 무궁화홀
- 행사 내용 : -특강: 온세현 품질경영연구소 대표
-2015 강원도 경제진흥시책 설명
- 행사 안내 및 참석 문의 : 강원도민일보사 전략사업국
(260-9310), 편집국 경제부(260-9230), 영서본부(746-8002)
- 참가비 없음 ■ 주최 : 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도민일보

**직장인을 위한
·신입채워탈 신입생(아킨) 모집**

합차점수기반 ~2015.2.4(수)
 * 전 직 합 점 : 입학금 수험료 30% 감면
 * 전 직 합 점 : 입학금 수험료 40% 감면
 * 전 직 합 점 : 입학금 수험료 50% 감면

발행관리부 문의 : 260-9310

양 구 — 디지털 문화 콘텐츠 과 — 20명
 홍 천 — 영 상 콘텐츠 과 — 20명
 가 평(예과) — 영 상 콘텐츠 과 — 20명
 화 천 — 인터 넷 비 즈니스 과 — 20명
 인 재 — 정보 통신 네 트 워크 과 — 20명

*지원자격 : 고교졸업 학력자 또는 산업체 근무중이며, 소속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